

# '전주 꿈마중 진로진학박람회' 재개

전주교육지원청, 전북대와 협력… 6년 만에 개최  
진로 특강 · 고교 진학 등 총 3개 특강 · 49개 부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5 전주 꿈마중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년 만에 재개된 이날 박람회는△최근 동향과 관련한 진로 특강△고등학교 진로진학△대학 진학 및 학과체험△진로적성 상담△AI&발명 체험△자체·공공기관 체험 등 총 3개 특강·49개 부스로 운영됐다.

특히 고등학교 진로진학에는 관내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민족사관고도 참여해 학부모의 관심을

보았다.

박람회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전북대와 협력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흥미와 재미를 넘어 학생의 진로와 진학 활동에 초점을 맞춘 내실 있는 행사로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원과 지역 주민까지 참여한 진정한 지역 교육 행사로 치러졌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박람회는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에게 진로진학 정보와 함께 각자의 꿈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목표 의식을 갖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5 전주 꿈마중 진로진학박람회'.

(사진=전주교육지원청 제공)

이리며 "추후 중·고등학생과 교원 중심의 진로교육활동을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 비전 선포 |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출범 실천 중심 교육혁신 플랫폼

"흙수저 아이였던 저는, 이제 전북 아이들이 겪어야 할지 않도록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북교육 혁신과 새바람을 위해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상임대표 이남호)'이 23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포럼 회원과 교육계·정치권·학계 등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식은 이남호 상임대표가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 비전을 선포하며 전북교육 혁신의 시작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포럼은 실천 중심의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전북 교육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 민주당 윤준영 도당위원장, 조국 혁신당 정도상 도당위원장, 그리고 전 축구선수 이동국, 정소영 성심여고 배드민턴 감독 등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과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언론사 대표, 시민사회대표, 이석 홍순 등 지역사회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포럼 출범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지숙 학부모협의회장, 임현백 좋은 정책포럼 이사장, 양복규 동암학원 이사장, 심의우 화신중학교 이사장, 이병석 사립중고 이사장협의회장 등도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재원 포크리컨설팅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에서 김용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이 23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포럼 회원과 교육계·정치권·학계 등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2부 행사로 진행된 공감토크.

### 이남호 상임대표 "전북 아이들이 격차에 막히지 않도록 길 만들고파"

(전 사대부고 교장) 공동대표가 경과보고와 함께 포럼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이남호 상임대표가 비전 선포를 통해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의 비전인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은 담한 학교가 아닌 열린 학교, 경쟁 중심이 아닌 성장과 관계가 살아 있는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핵심 전략을 담고 있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위기의 전북 교육을 살리는 것이 진짜배기 전북

교육포럼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간절한 꿈으로 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오늘 출범식은 전북교육의 트네 상스를 여는 자리이다"고 강조했다.

2부 행사로 이남호 상임대표의 제자이자 방송인 허재무씨(비비컴퍼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공감토크'는 캠핑 분위기의 프리토킹 형식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상임대표는 공감토크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배우자 믿음, 걸어온 길 등 삶과 교육 철학을 진솔하게

연결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제출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전북교육의 혁신 방향과 미래교육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은 △전북교육 미래전략 개발△학교·지역·대학·산업 협력 모델 제안△교육공동체 대상 상향식 현장 문제 및 정책 제안△교육 혁신 이커네이션 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상임대표는 "모범생 이남호가 아닌 '모험생 이남호'로 학교생활을 했더라면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거란 아쉬움도 크다"면서 "흙수저 아이였던 저는 이제 전북 아이들이 격차에 막히지 않도록 길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닷새간 '민원 주간'"

11월 24일 '민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28일 5 일간 '민원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의 날'은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24일로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는 민원의 날 의미를 생각하며, 민원 주간 동안 고객지원실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상호존중의 문구가 적힌 흥보불과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원인·민원담당자에게 바라는 한 문장 남기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는 민원인·민원담당자 간

면제 '사립유치원 기록관리 안내서 제작'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체계적 관리 기준이 부족했던 사립유치원의 기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 학교 단위 과제별 생산·등록 세부기준을 수립해 학교 현장에서 기록물 생산과 분류·등록 과정을 명확히하고, 업무 효율성과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올해는 1월 24일 첫 협의회를 시작으

로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조성을 목표로 2023년 출범했다. 이후 정례화를 통해 신뢰와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중점 연구과제 공동 추진, 각종 기록관리 현안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했다.

올해는 1월 24일 첫 협의회를 시작으

## 전북교육청, 제6차 전북교육기록 연구협의회 개최

사립유치원 기록관리 안내서 제작 등 기록관리 수준 향상 기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제6차 전북교육 기록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소속 기록 연구사 15명으로 구성된 전북교육기록 연구협의회는 안정적인 기록연구 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기록관리 기반

##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보건프로그램 절주 캠페인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이 지난 21일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보건프로그램 절주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본교 학생들의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절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음주 상식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퀴즈△건강한 대체 음료를 직접 만들어보는 무알코올 음료 제조 및 시음 체험△절주의 중요성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음주고글 게임△자신의 주량을 인식하고 음주장을 조절해 복을 배우는 슬의 적정량 조절 체험 등이 있다.

캠페인 총괄을 맡은 보건관리학과 신혜빈 학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우들이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보건관리학과가 주도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2025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지난 21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제전, 전북대서

뉴스포츠 경기로 교류 확대, 문화공연·리셉션 등 화합 한마당

'2025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이 지난 21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제전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거점국립대 소속 교원·직원·학생 약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10년 만에 다시 전북대에서 열리는 제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큰 공연과 리셉션 등

을 벌였다.

전북대 응원단과 학생동아리 공연이 이어진 문화행사와 리셉션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바비큐, 경품 추첨 등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양오봉 총장은 "가을 햇기 가득한 전북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거점 국립대학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여러분이 쏟은 땀방울은 우리나라 대학 발전의 무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우수학문분야별 글로벌 연구성과 발표

포럼서 바이오헬스 등 4개 분야 17개 연구팀 성과 공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0 일 우수학문분야별 글로벌 공동연구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선도형과 도약형 학문분야와 융·복합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15개 연구과제 지원에 나섰고, 올해는 선도형 12개, 도약형 6개 등 총 18개 과제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에너지를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이, 농생명 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과 식물방역 기술 등 글로벌 협업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는 성과가 소개됐다.

첨단소재, 에너지, 농생명 등 4개 분야 17개 연구팀이 국제 공동연구의 성과를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질환 진단·치료 기술 고도화를 위한 최신 연구가, 물리·첨단소재 분야에서는 차세대 신소재 개발과 배터리 성능 향상 기술이 공개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이, 농생명 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과 식물방역 기술 등 글로벌 협업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는 성과가 소개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국제교育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브이로그(V-Log)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대학에서 보낸 청춘, 브이로그 영상에 담다'

전주대, 유학생 브이로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20 일 대학 내 국제교育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브이로그(V-Log)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주대교育에서의 일상과 캠퍼스 생활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기록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학생들은 수업, 동아리 활동, 교내 시설 이용 등 실제 대학 생활의 모습을 3~5분 영상에 담아냈다.

공모전에는 5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심사 결과 대상은 중국 출신 과성남(중국) 학생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테레사 제 사이(미얀마)이, 은상은 응웬티 쭈·泫후흐엉(베트남)이, 장려상은 타밍주나(네팔) 학생 외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입상작 영상은 SNS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취업 A to Z 실전코칭 캠프' 진행

작성△전공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작△지역 이동·청소년 성장발달 기관 채용 유형 반영 면접 컨설팅△모의면접과 전문가 피드백 등 단계별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에 학생들은 조별 실습과 1:1 피드백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채용 상황을 반영한 모의면접으로 현장 대응 능력과 자신감을 높였다.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이력서

/장은성 기자